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함께해요

수수료 현실화·감량기 설치 확대
광주시 다양한 감량 사업 본격화
하루 배출 전국 평균보다 25% 많아
年 1300톤 감량...시민 동참 당부

광주시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운동' 등을 통해 전체 발생량을 5.6% 감소했지만, 1인당 일일 발생량은 340g으로 전국 평균(전국 평균 270g)보다 25%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시의 일일 총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도 2016년 532톤에서 2019년

503톤으로, 하루 평균 500톤 이상을 배출하고 있다. 연간 총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도 2019년 기준 18만 3595톤에 이른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기존 시행중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사업과 함께 수수료 현실화 등에 나서는 한편 다량배출사업장 관리와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공동주택에 세대별로 배출량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 기반 세대별 종량제를 1만 3500세대에 보급하고,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감량기 설치사업의 대상을 다량배출사업장까지 확대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또 연 1300톤 감량을 목표로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현실화(인상) 사업 등을 통해 자치구 청소행정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음

식물쓰레기 감량 효과 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시는 특히 초·중·고교생 대상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배출실태와 감량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 참여형 홍보·캠페인으로 자발적 감량 실천 문화 조성에도 집중한다. 시는 자체적으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음식물자원화 시설 공정을 개선하고, 매년 상·하반기 노후 설비 예방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박재우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생활 속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방세, 모바일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광주시 전자송달제도 홍보 나서

광주시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수 있는 전자송달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전자송달 제도는 과세관청이 보통 고지하는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를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스북 등 간편결제사업과 광주은행, 농협 등 15개 금융사 앱, 전자사서함(위택스), 전자우편 등으로 편리하게 고지서를 송달받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사서함과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신청했지만, 현재는 간편결제사 및 15개 금융사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달부터 적용되며, 신청만 해도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받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212만건을 부과해 10.9%(23만건)의 전자송달율을 기록했고, 올해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일용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깜빡 잊고 납기 내 납부를 못해 가산세를 더해 납부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편리하게 송달받고 납부할 수 있는 전자송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중효 광주시 행정부시장 해빙기 맞아 공사현장 점검

김중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5일 해빙기를 맞아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 현장(사진)과 문화콘텐츠산업 거점구축을 위한 '실감콘텐츠VR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김 부시장은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나주 열병합 발전소 가동 지연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증가 등 쓰레기 폭증에 따른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대책 마련을 당부하고,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조치 강화 등을 지시했다. 김 부시장은 또 남구 송하동 내 '실감콘텐츠VR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근로자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면서 "11월 준공을 위한 공정관리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연간 3억원까지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19일까지 공모
현장실사·심사 거쳐 4월중 선정

광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예산 14억원을 투입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참여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이다. 지원분야는 브랜드·기술 개발, 홍보·마케팅, 시장 수요조사, 시제품 제작, 품질개선 비용, 특허출원 인건 취득비 등 사업개발비용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 기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3곳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체를 구성해 공동상표와 브랜드를 개발하는 경우 연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기업은 지원 회차

에 따라 총 신청 사업비의 10~30%를 자부담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달 중 공모 참여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신청자격과 구비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는 광주지역 지원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이 진행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온라인 신청을 받아 소규모(회차 당 15인 이하)로 연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공모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19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의 재정지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신청 기업의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대면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선정된 뒤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코로나로 문 닫은 시민체력증진센터 재개장

오늘부터...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기초 체력 측정후 맞춤형 운동 처방
비대면 온라인 체력 증진교실도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일부 중단됐던 시민체력증진센터를 다시 개방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조선대학교 체육대학 5층에 마련된 시민체력증진센터는 8일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운영된다. 전문 운동 처방사와 체력측정 요원이 배치돼 기초 체력을 측정하고 적합한 운동을 제시하는 맞춤형 운동 처방과 부족한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 자신

에게 맞는 운동수업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체력증진교실 등이 운영된다. 맞춤형 운동 처방은 예약 후 센터를 방문해 진행되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30분당 1명의 인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일일 4회 방역소독 작업을 하고 안면인식 체온계를 설치와 출입 명부를 기록하는 등 철저한 방역수칙에 따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체력증진교실은 집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영상 등을 통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세부 프로그램은 ▲유·무산소 복합트레이닝 ▲낙상예방을 위한 하체 근력 운동 ▲요통예방을 위한 매트 운동 ▲코어 향상을 위한 슬링 운동 등 총 11개다. 시민체력증진센터는 센터가 운영을 시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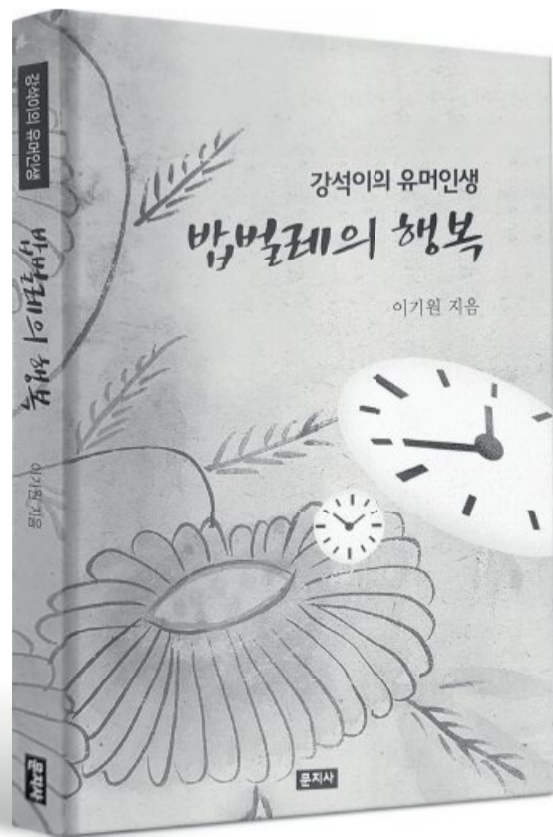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초체력측정 2만6628건, 스포츠 재활 3798건, 체력증진교실 2199건으로 매년 목표 대비 100%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계획 목표 대비 실적이 14%에 그쳤다. 시민체력증진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운동 처방의 경우 시민체력증진센터 홈페이지(www.gwangjupf.co.kr)로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고, 스포츠재활프로그램은 전화 문의(062-230-6589) 후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신동하 광주시 체육진흥과장은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형 에너지전환 시범마을 22일까지 공모

내달말까지 지원대상 마을 선정
전문가 자문 거쳐 마을별 특화사업

광주시와 (재)국제기후환경센터는 "시민 중심의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광주형 에너지전환 시범마을'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에너지전환마을은 에너지전환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적인 사용을 실천하는 마을이다. 마을 내 다양한 조직간 연합체(네트워크)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및 현장 심사 등을 통해 이

달 중 지원 대상 마을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마을은 전문가 자문과 교육을 거쳐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광주형 에너지 전환마을' 모델을 개발해 마을별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이 종료되는 12월에는 마을별로 성과 발표를 통해 5개 시범마을의 성과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계기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연합체 등은 22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와 국제기후환경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국제기후환경센터로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kys01@icecgj.or.kr)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국제기후환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라도 촌놈 이기원이 쓴 '밤벌레의 행복'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강석이의 유머인생**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꾸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은이 이기원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에스24 (배송료 무료)